

성령의 열매(9) 온유 - 야생마 길들이기

베드로전서 3 장 14-16 절

1. 개인 vs 공동체

2021년 7월에 발표된 엠브레인의 트렌드 모니터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라는 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발표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가량이 이전보다 나를 위해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타인에 대한 관심은 해마다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사회에 대한 관심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점점 공동체보다는 개인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 사회가 되었다는 말이죠.

저는 이 통계자료를 보면서 어느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소개되었던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라고 외치면서 춤을 추는 가수 지망생들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오늘 밤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라고 모두가 노래하며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라는 노래와 춤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각자의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입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내 삶은 내가 스스로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 가운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과거에는 개인보다는 가족이나 나라 혹은 회사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장년 세대에게는 여전히 그런 가치관이 남아 있습니다.

9. 온유 - 야생마 길들이기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 개인이 희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반면에 지금은 개인이 너무 중요해졌습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 각자는 자기 자신을 이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 회사, 교회, 나라와 같은 공동체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을 당하지 않는 세상,
동시에 자기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타인과 공동체에 대해 애정을 쏟는 세상,
이런 세상은 불가능한 것일까, 그런 질문 말입니다.

2. 온유에 대하여

오늘 함께 살펴볼 온유는 그런 점에서 꽤나 유익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은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정의합니다.

온유 -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

꽤나 좋은 덕목인 것 같습니다. 허나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의 사람들에게 “온유”는 그다지 좋은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약한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현대사회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진짜 멋진 사람이란 결코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함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세고, 온갖 지혜로 남을 설득할 줄 알고, 어떤 식으로든 타인을 지배할 줄 아는 자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량은 필수입니다.

자기 업적에 대해서,

자기 능력에 대해서,

자기 지식에 대해서,

남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멋진 사람, 특히 남자의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온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유함이란 매력적인 성품인가요? 여러분도 온유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예스”라고 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이언맨을 비롯한 할리우드 액션 영웅들을 보십시오. **온유한 히어로가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힘이 되었든, 지식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아무튼 남에게 약해 보이면 곤란합니다. **강해 보여야 합니다. 그게 매력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모세대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자녀를 교육시킵니다. 가난이나 나약함을 물려주기 싫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온유”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다지 매력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꽤나 수치스럽고 나약한 성품일 뿐입니다. 어느 누가 나약한 모습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요동을 치는 때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정말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믿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땅을 차지하려면 온유한 성품은 곤란합니다.

3.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

9. 온유 - 야생마 길들이기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온유와 많이 다릅니다. 그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온유를 가리키는 단어로 갈라디아서 5 장 23 절의 “프라우테스”와 마태복음 5 장 5 절의 “프라우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 장 23 절의 “온유”(prautes, 프라우테스)는 “자기에 대한 이기적인 관심이 없고, 자기-자랑을 전혀 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들에게 이런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억압을 당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 장 5 절의 온유(praus)는 “오랜 훈련에서 비롯된 평온함 가운데 나오는 힘”을 의미합니다. 즉, 온유란 그저 무기력하고 나약한 것이 아니라, 단단한 내면에서 비롯된 힘입니다.

구약성경의 경우에는 민수기 12 장 3 절에서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를 가리켜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온유함은 히브리어 “아나우”(anaw)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무거운 짐을 짠 사람”을 지칭합니다. 즉, 누군가가 주어진 상황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지만 기꺼이 견디는 상황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민수기 12 장의 배경을 보십시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누이인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심하게 비방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는 얼마든지 자신의 영적 권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9. 온유 - 야생마 길들이기

민수기는 이런 모세의 모습을 “온유함”이라고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8 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세의 성품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백성들의 재판 업무를 담당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을 섬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헌데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너무 지쳤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어떻습니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경적 온유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온유함은 그저 유약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유함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온유란 단순히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나누고, 나아가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용기

4. 예수님의 온유

이와 같은 온유의 절정은 예수님에게서 발견됩니다.

마태복음 11 장 28 절에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우리가 수고의 짐과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쉴 수 있습니까?

이어지는 29 절에 답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9. 온유 - 야생마 길들이기

왜 우리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이제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격이 그저 비단결처럼 곱고 부드럽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지만, **그것을 불평하지 않으시고, 원망하지 않으시고, 그저 입술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니요, 무기력한 것도 아니요, 삶을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손가락만 까딱해도 수 만명의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호하고 악한 자들을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힘을 숨기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 기꺼이 그렇게 힘을 숨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내적 평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온유입니다.**

5. 우리가 따라야 할 온유

이것이 진정한 온유이기에, **사도 바울은 그의 여러 편지에서 온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비록 바울 당시의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온유함을 천하게 여기고 무시했지만,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로 온유함을 나열한 것이지요.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 장 24 절과 25 절입니다.

9. 온유 - 야생마 길들이기

주의 증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 말씀은 정말 유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리더들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온유함”을 두 번 언급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온유함이 필요하고, 훈계할 때에도 온유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내적인 평안을 기르고, 그것이 진정한 힘이 되어, 불편한 상황들을 견디고, 기꺼이 희생할 줄 알라는 겁니다. 만약 목회자나 항존직이 이런 온유함을 갖추지 못하면, 다른 성도들은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제발 온유한 언어와 행동이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온유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특히 지도자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도자에게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온유의 미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디도에게 그가 맡은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3 장 2 절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유튜브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 연예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모으는 연예인들, 그리고 신문의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인플루언서들, 그들 가운데 온유하다는 단어를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뽐내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남을 깎아 내려야 하고, 무시해야 하고, 짓밟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의 온유에 대한 가르침이 너무 무기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온유를 가르쳐야만 합니다.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온유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온유란 단순히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이 아닙니다. 야생마와 같은 우리 자신을 조련사가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나눌 줄 알고, 나아가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그런 온유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교만"이라고 하겠습니다. **교만은 자신을 실제 상태보다 더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를 높이는 것을 넘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의 상태에서는 결코 온유의 성품이 자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유의 위조품은 무엇일까요?

앞서 살펴본 **일반적인 온유**라고 하겠습니다. 즉 **사람의 성격이나 표정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 그것은 성경적 온유가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온유함일지 몰라도,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 우리 안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막강한 힘이

9. 온유 - 야생마 길들이기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견디기 힘든 고난을 만나도, 견디는 법을 배웁니다. **오히려 남을 위해 기꺼이 스스로를 희생하는 삶을 요청 받습니다.** 그런 멋진 삶을 함께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권면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벧전 3:15)

기도하겠습니다.